큰스님 수행한담

수행 잘 할수 있어요"

◇ '수행을 잘해 중생제도를 회향해야 한다'는 성철스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스님은 인근 사찰의 법회장을 찾아 법문을 자주한다.

"세상살이 어렵고 힘들수록 나 한사람 앞장서 봉사하면 사회전체가 나누는 풍토돼요"

한 뒤에는 발우를 닦으면서 번뇌를 소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공양할 때 빈 발우를 내 마음이라 생각하고 매일 매일 반조해 봅니다. 무릇 수행자들은 발우에 공양이 가득차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받은 음식은 위로는 삼보님께 공양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에게 베풀어 주노니 목마름과 주림을 없애고 무상도를 이루길 바랍니다'라는 원을 세워야 합니다.

성철스님께서는 발우공양하실 때 항상 호궤합장하고 겸허한 마음가짐으로 공양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들에게 가끔 "수행을 잘해서 중생 제도로 회향해야 한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말씀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야한다고 가르치기 보다는 먼저 실천해 보이시는 선지식이셨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러한 스님의 행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스님들의 용맹정진에 사표가 된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너무들 먹는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음식 탐욕이 지나칩니다. 성철스님께서는 솔잎가루와 소금간을 한 시래기하고 밥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소찬을 드시는데도 정진하실 때 보면 어디서 힘이 나시는지 대단합니다. 눈빛은 얼마나 밝으신지 제대로 쳐다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스님께서는 늘 좋은 음식을 먹으면 산란한 마음이 일어나 수행의 마가 되니 삼가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도선사에 있을 때 불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한번은 인부들이 거처하고 있는 숙소로 공양을 가지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부들이 곡차를 권하는 거예요. 인부들과 함께 일도 했던 터라 친분도 있어서인지 인부들은 "스님, 곡차 한 잔 하시면 피로도 풀리고 내일 일하실 때 힘들지 않을 겁니다"라며 자꾸 권해요. 중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 법쭉 받아 먹지도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자꾸 권해 한 잔 마시고 절로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발우공양을 마치고 앉아 있는데 성철스님께서 부르시더니 "행자님, 어제 좋은 음식 자셨습니까?" 물으시는 겁니다. 한 잔 밖에 안 마셔 냄새도 안 나는데 곧바로 이렇게 아시니 질겁을 할 밖에요. '이놈아, 네 눈빛만 봐도 다 알아'라는 것처럼 자연이 하나씩 없어지더군요. 그때쯤 되어 나를 부르시더니 "이놈아 지금까지 공부 잘못 했구나. 오늘은 제대로 공부했겠지"고 하시는 거예요. 벌써부터 작은 계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어찌 가시밭길보다 더 험난한 구도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씨앗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잡초를 솎아줘야 하듯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네가 지금 앓고 있는 뿌리깊은 중생병을 치유하는 기초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러주신 거였지요. 결국 나는 그 실수로 인해 나의 참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청담스님과 성철스님으로부터 받은 엄격하고 자상한 교육은 지금까지 수행의 외길을 걸을 수 있도록 향도해 준 등불입니다.

두 스님께서 보여주신 수행으로 인해 나도 토굴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세계를 엿볼수 있었습니다. 특히 발우공양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면 심산유곡에서 홀로 수행하는 것이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혼자 토굴생활을 하다보면 가장 큰 둔제가 공양입니다. 성철스님이 일러주신 감자와 솔잎, 도토리 등으로 생식을 하니 3년여동안 한번도 시중으로 나오지 않아도 되었지요.

태백산에서 였어요. 바위밑에 거처를 마련하고 돌담을 쌓아 수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은 독사가 들어와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라구요. 처음에는 무섭기도 했지만 계속 수행을 하니 되돌아 가더라구요. 간혹 들짐승들도 찾아 오곤 했습니다. 이런 일을 몇번 겪으면서 나름대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작용입니다. 내가 만약 그 독사를 쫓아버리려고 했다거나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바로 행동으로 이어졌을 것이고 그놈은 분명 나를 해치려 덤벼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해치지 않으려 한다면 남도 나를 해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의 순리인 셈이지요. 이렇게 3년여동안을 두문불출하면서 토굴생활하다 시중으로 내려와 보니 맞닥뜨리는 모든 사람들의 눈빛이 욕망으로 이글이글 끓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무서워 도저히 말을 건넬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다 그 순간 도선사 있을 때 성철스님이 일러주신 '수행을 잘 해 중생 제도로 회향해야 한다'는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바로 이것이었구나. 홀로 있는 은행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내가 성철스님, 청담스님과 같은 큰 선지식을 만나지 못했다면 한낱 부처님 밥을 얻어먹는 소인배나, 부처님을 팔고 다니는 사기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진리는 법계에 가득 차 있지만 눈으로 보려 해도 볼 수 없고 참된 소리는 천지간에 울려퍼지는데 들을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진리의 근원을 우리 중생들도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좌선도 염불도 이 세계를 꿰뚫어 보기 위한 방편입니다. 삼라만상과 우주까지도 궁극적으로는 한줄기 광명임을 통찰하는 것이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물질적으로 매우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나보다는 여러 대중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점들은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불필요하게 겪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음가짐만 바로 잡는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생길 이유가 없고 지옥이 바로 극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마음가짐을 항상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비심을 갖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이기심을 버리는 것이지요. 자비심이 가장 존귀합니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 자신도 행복해지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 내가 앞장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헤아려 주고 남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한다면 기쁨은 파도처럼 이 사회에 퍼지고 자비가 넘쳐날 것입니다.

좌선도 염불도 진리세계 보기위한 방편

"행자시절 헌승복 얻기도 힘들었는데 …"

정리=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김 문 숙

〈부산불교문인협회 고문〉

중국의 대시인 백낙천이 항주대수로 부임하는 길에 만난 도립선사에게 불교의 진수를 물었는데, 선사는 이렇게 답했다. "나쁜 짓은 하지 말라, 좋은 일을 많이 하라" 시인이 그 답을 우습게 여겨 "그런 소리는 세살 먹은 아이도 합니다"하자 선사는 "세살 먹은 아기가 알고 있어도 80세의 노인이 그것을 행하지 아니한다. 사람은 말하기는 쉬워도 나쁜 짓을 안하고 좋은 일 많이 하기가 욕심 많은 대중으로는 어렵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겠는가"

불교가 어떤 것이냐고 묻는 이들에게 나는 이 도립선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 항상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좋은 일 만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 자연스런 이치를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불자의 삶이라고 믿는다.

대대로 불교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나는 어릴때부터 할머니 손을 잡고, 포교당을 따라다니며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이화여자대학 약학과에 입학할 때까지도 나는 오로지 이 세상에 종교는 불교만이 존재하는 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대는 기독교 재단 학교였고, 예배시간과 기독교문학시간 등을 통해 처음으로 타종교를 접하게 됐다.

학교를 졸업하고 문학활동을 시작하면서 나의 불교에 대한 관심은 보다 적극적으로 발전했다. 그전에는 그저 마음만 불교신자였는데 문학공부를 한다고 일본을 오가면서 당시 일어로 발간된 〈반야심경〉 〈법화경〉 〈일본선사일대기〉 등 불교관련서적을 직접 사 읽어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전문적인 불교지식이 없었던 내게 그 책들은 큰 영향을 미쳤다. 그때서야 나는 〈반야심경〉의 공사상도 이해할 수 있었고, 그 깊은 가르침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었다. 불자라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반야심경〉은 276자의 짧은 경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총괄한 경전이다. 석가여래는 인간이었지만 수행한 결과 고민과 고통끝에 정각한 붓다가 되셨기에 우리도 석존의 가르침 그대로 팔정도를 충실히 지키고 육바라밀 수행으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어 있다.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다' 공의 철학이 담겨 있는 이 경을 항상 듣기만 했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관련서적을 접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무무명 역무무명진(無無明亦無無明盡)' 그 깊은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됐다. 무지와 망집에 찬 마음의 그늘이 번뇌의 근원이니 무명을 무무명하면 생로병사의 고통도 없어지고, 역무무명진 된다는 구절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만이 아는 마음속의 추한 욕심을 쫓아 내고 위대한 지혜의 길을 걸어가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다. 또한 불교가 인간 삶의 정도를 가르치는 대단히 현실적인 종교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나쁜 일 하지말고 착한 일 많이하라"

불교 바로 믿는 가르침으로 되새김

그렇게 경전공부를 하면서 문학활동을 하던 중 89년 돌아가신 원광스님과의 인연으로 부산지역 불자문인들의 모임인 부산불교문인협회를 창립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스님이 회장을, 내가 부회장을 맡으며 불교문학의 활성화를 위해 계간 불교문학지 〈실상문학〉의 발간도 시작했다. 불교문인회 활동을 하면서 일반인들보다 더욱 불교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생활속 수행정진의 필요성을 절감했지만 사실 지금와 돌이켜보면 생각만큼 제대로 해내지 못한 면이 더 많다. 하지만 이왕 부처님과의 복된 인연을 맺었으니 그 깊고 아름다운 진리를 배워 내 인간완성의 길잡이로 삼고 문학수업의 기둥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요즘 불교계가 내부분쟁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혼란한 시대일수록 실망하지 말고 도리어 불자 한사람 한사람이 더욱 정진해야 한다. 한사람 한사람의 수행역량이 그대로 한국불교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내 믿음이다. 〈계속〉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화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술선식(2개월 50만원), 술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7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2,000명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033-07-172508(대구여래한방)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655-2227
(011)808-888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전화 0443-646-7371)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술선식(松仙食)」,「술효소정액(松酵素精液)」,「익수영진고」,「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11-545-5550) 최 청청심 올림